

한국전쟁의 민간인 표상 비교 연구*

- 다나카 고미마사의 「상륙(上陸)」과 곽학송의 『철로』를 중심으로

이 희 원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국문초록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벌어진 내전이자 2차대전 이후 세계에 냉전 질서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빚어진 국제적 열전이었다. 여기에 연루된 여러 국가와 민족은 과거의 복잡한 역사적 궤적이나 의미, 가치 등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력권을 구축해갔다. 이 세력 관계의 표층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이름으로 구현되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게 된 명분은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전쟁의 필연성을 담보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적'의 존재라고 할 때, 한국전쟁에서 적의 정체는 '이데올로기'라는 추상의 영역에서 추출되었던 것이다. 아감벤이 말하는 '장치'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전쟁을 추동한 '전쟁의 장치'는 국제적 역학 관계와 반공이데올로기라는 틀이다. 이 '장치'는 관념과 실천 사이에 필연적 인과율이 없으며, 관념이 실천을 장악할 때 구체적 상황에 대한 몰이해와 폭력의 부조리가 발생함을 강조한다.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피해가 극심했던 것은 이런 점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오랜 세월 공식 역사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민간인 피해자들의 서사는 문학작품의 형태로 흔적을 남겼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다나카 고미마사(田中小実昌)의 「상륙(上陸)」(《시그마(シグマ)》, 1957)과 곽학송의 『철로』(《교통》, 1955년~1956)를 비교 고찰했다.

다나카 고미마사의 「상륙」에는 참전할 의사가 없는 민간인이 권력자들의 농간과 강제에 의해 한국행 배에 타게 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암묵적으로 진행되었던 일본 민간인들의 참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곽학송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4266).

『철로』에서는 남측이나 북측 모두 개인의 개체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 없이 사람을 무조건 이데올로기에 복속시키려는 통치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작품 모두 민간인이 통치의 '장치'에 의해 전쟁에 휘말리는 메커니즘을 폭로한다. 나아가 민간인들이 그러한 '장치'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 즉 통치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보여준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상륙」의 인물들은 자발적으로 하선을 결정하고 「철로」의 주인공은 통치자들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 작품들의 민간인 표상을 통해 우리는 한국전쟁을 유발한 냉전 체제와 국가 폭력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과도 조우하게 된다.

주제어 : 다나카 고미마사, 곽학송, 한국전쟁, 민간인, 장치, 탈선, 초국가적 관점

1. 한국전쟁이라는 기표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 전쟁의 성격 규정은 여전히 간단치 않다. 해방기 한반도에는 새 국가 건설의 헤게모니 장악을 향한 이념 대립이 있었다. 이는 미·소의 신탁통치를 위해 임의로 마련된 3·8선을 계기로 고착화된다. 이후 남한과 북한 정권은 각각 통일을 향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왔다.¹⁾ 이런 측면에서 한국전쟁은 내전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국제전의 성격도 갖는다. 2차대전 종식 이후 벌어진 승전국 간의 세력 대결과 세계 체제 개편 과정에서 패전국인 일본이 아닌 한반도에 3·8선이 그어진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독립 신생국 구상은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지역 미국 방위선을 구상했고 소련은 중국 공산화의 연장으로 한반도 공산화

1) 한규한, 「한국전쟁, 누구의 전쟁인가?」, 『마르크스21』, 책갈피, 2010, 308-309쪽; 손경호, 「최근 한국전쟁 연구동향-2005년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 연구』 5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참조.

도 기대하고 있었다. 한반도 내외의 이와 같은 역학 관계 속에서 한국전쟁은 발발했다. 이는 남한도 북한도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고, 자체적으로 전쟁을 끝낼 수도 없었던 상황임을 의미한다. 즉 냉전은 2차대전의 승전국이 된 제국들 사이에 끼인 한반도에서 벌어진 열전으로 실현되었고, 종전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²⁾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전이자 국제전인 한국전쟁의 성격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냉전의 실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한국을 포함하여 한국전쟁에 연루된 여러 국가와 민족은 이처럼 복잡하고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의 현재를 구성하는 지난 역사의 궤적과 의미, 가치 등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덮여버리는 현상을 겪게 된다. 한때 파시즘 세력에 대항해 힘을 합쳐 싸우던 미국과 소련이 적이 되고, 일제 황군과 대치했던 오스트레일리아 군인이 이제는 일본 국민의 환대를 받으며 한국전쟁을 치르기 위해 일본을 경유하는 식이다.³⁾ 무엇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제국과 식민지 관계로 묶여 청산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갖게 된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이 이제는 우방국으로 위치하게 된 상황이 그러하다. 일본은 패전 후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으며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고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을 수용했다. 소련과의 대결 구도를 강화해가던 미국은 일본을 미국의 ‘기지국가’⁴⁾로 삼아 동아시아 방어선을 구상했고 한국전쟁까지 치른다.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원조가 필요했던 것처럼 남한은 미군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때문에 한국은 전쟁 당시 미국의 전쟁물자 창구였던 일

2) 영국의 처칠이 1946년 ‘철의 장막’ 연설을 하고 미국의 트루먼이 1947년 세계 각국을 향해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중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양자택일 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된 ‘냉전’(한규한, 앞의 논문, 306쪽)은 1950년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라는 강력한 ‘열전’으로 그 대결 구도를 표출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다.

3) 앤드루 새먼, 이동훈 옮김, 『그을린 대지와 검은 눈』, 책미래, 2015, 248쪽.

4)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참조.

본에 대한 비판 의식이나 적대성을 표면화할 수 없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피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폭력의 전시장으로서 인간이 세상에 불러들인 가장 강력한 부조리다. 한국전쟁은 전쟁 자체가 가지는 이러한 부조리에 더해, 먼 이국의 인적·물적 자원과 그들의 정책 결정으로 치러졌다는 부조리 역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강화된 한국전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전쟁에서 적에 대한 적대감을 유지하는 것은 전쟁의 필연성을 담보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한국전쟁에서 이 역할을 한 것이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이데올로기’였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새로운 독립 국가의 기틀을 잡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분단으로 이어질 것은 아니었다. 특히 민족적 동질성과 유대감이 강했던 한반도 사람들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되는 상황은 단순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에서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이유로 그 선명성이 과하게 강조되었다. 아무 제약 없이 오가던 곳에 놓인 3·8선 철조망은 말 그대로 임의적이지요 잠정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공산주의나 자유주의나 하는 관념을 내세운 강대국의 세력 다툼에 의해 이 선은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될 금기의 선이 되어갔다. 이는 전쟁의 명분을 강조하고, 나와 적의 구분을 위한 물리적 장치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이데올로기적 선명성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존재하기 힘들다. 마음과 정신의 문제는 개별적인 것이기에 타자 간에 완전히 상통할 수 없고,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정도’의 문제이자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이데올로기가 정체성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단순화되고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 이데올로기라는 추상적 영역에 대한 선명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구체적 현실에 적용될 때에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과 음모, 폭력 등은 이런 이유로 필연이 된다. 손에 잡히지 않는 관념으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고 이데올로기적 선명성을 절대시하는

과정은 적군은 물론 아군에게도, 나아가 스스로에게도 한계 없는 적대감과 의심의 내면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전의 모호함은 국군과 인민군, 그리고 민간인의 구분되지 않는 외양에 의해 더욱 과열화되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죽음을 양산했다.⁵⁾ 그래서 아군의 정신무장을 철저히 하고 적군을 전향시켜 아군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심리전⁶⁾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조르조 아감벤은 미셸 푸코의 계보학적 역사 탐구의 관점에서 ‘장치(dispositif)’ 개념을 도출한 바 있다. 이는 권력 관계가 구체화되는 장으로서의 역사적 요소인 여러 제도, 주체화 과정, 규칙의 전체를 지칭한다. 아감벤은 이를 경제나 정치 등 행동적·실천적 활동으로 의미화한다. 이렇게 볼 때 ‘장치’에는 “생명체들의 몸짓, 행동, 의견, 답론을 포획, 지도, 규정, 차단, 주조, 제어, 보장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것”⁷⁾이 포함된다. ‘전쟁’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폭력 수행을 용인하는 예외적 통치 상태로, 강력한 ‘장치’가 강제적으로 운용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아감벤이 ‘장치’에서 주목하는 점은 그것에 제한된 사회와 주체라기보다는, ‘장치’에 놓여 있는 존재론과 실천의 분열 지점이다. 장치는 “존재 안에 어떤 토대도 두지 않는 순수 통치 활동이 그것으로,

5) 노영기,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관한 자료 실태와 연구현황」, 『역사와현실』 54, 한국역사연구회, 2004; 이신철, 「6.25남북전쟁시기 이북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위의 책; 김학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20세기의 내전」, 『아세아연구』 14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서중석,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학살의 연구 방향」, 『사립』 36, 수선사학회, 2010; 최호근, 『기념의 미래』,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등 참조.

6)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빠라 심리전과 냉전이데올로기」, 『역사와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김균, 「미국의 대외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 2007;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 냉전시대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이윤규, 「6.25전쟁과 심리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0; 이상호, 「한국전쟁기 맥아더사령부의 빠라 선전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58,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김일환·정준영, 「냉전의 사회과학과 ‘실험장’으로서 한국전쟁」, 『역사비평』 118, 역사비평사, 2017 참조.

7) 조르조 아감벤, 양창렬 옮김, 『장치란 무엇인가?』, 난장, 2010, 33쪽.

그것에 의해 실현되는 것”⁸⁾이다. 구체적 존재와 무관하게 ‘장치’는 장치 그 자체로 구성되어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관념적인 것과 현실적 실천 사이에 필연적 인과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한국전쟁이 아무리 정치적 올바름과 정의구현을 위한 이념적 기치를 내세웠다고 해도 그 구체적 실천으로 빚어진 무수한 폭력과 죽음, 부조리들이 합리적으로 연결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장치’의 본질이다. 때문에 ‘장치’는 이 분열 면을 강제로 결합할 절합의 ‘주체’를 필요로 한다. “모든 장치는 주체화 과정을 내포하며, 이 과정이 없다면 장치는 통치장치”가 아닌 단순한 “폭력 행사가 되어버”⁹⁾린다고 아감벤은 이야기한다. 이런 점에서 국제전이자 이데올로기전으로서 한국전쟁 ‘장치’가 갖는 모순과 불합리는 이 ‘장치’의 정체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내면화한 ‘주체화’ 과정인 것이다. 사람들은 전쟁터라는 ‘장치’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배반하는 통치 논리를 강제적으로 주입받는다. 이를 통해 ‘장치’는 권위를 획득한다. 장치와 주체는 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기정사실로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한국전쟁에 맞닥뜨린 민간인들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2차대전 때까지 당대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기억과 경험, 감성과 가치의 분할선을 와해시켜버린 ‘장치’로 작동했다. 하지만 민간인은 전장에 나선 사람들과 달리 이 ‘장치’의 정체를 파악하고 숙지하는 것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권력자가 전쟁을 결정하면 민간인들은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기존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민간인이 한국전쟁을 야기한 제국 간의 권력다툼이나 이데올로기전의 양상을 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쟁 앞에서 이들이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거의 전무하다. 다만 민간인은 전쟁 ‘장치’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주체가 되기까지의 시차를 보여주는, 그리하여 ‘장치’가 실제 현실과 괴리된 임의적인

8) 위의 책, 28쪽.

9) 위의 책, 41쪽.

통치 논리임을 증명하는 표상이 된다. 납득할 수 없는 사회 변화와 죽음의 공포는 한국전쟁에 얽힌 다수의 민족과 국가의 사람들이 맞닥뜨린 현실이었다. 하지만 전쟁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로도 이들 민간인 피해자들의 서사는 공식 역사의 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다. 전쟁 ‘장치’는 그 ‘장치’로부터 벗어나는 존재들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작품이나 증언, 수기, 검열에서 누락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여러 매체의 기록 등이 중요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민간인들이 한국전쟁에 말려들고 ‘부역자’로 규정되는 상황에 문제 제기하는 두 작품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다나카 고미마사(田中 小実昌)의 「상륙(上陸)」(《시그마(シグマ)》, 1957)과 곽학송의 『철로』(《교통》, 1955년~1956)가 그것이다. 두 작품 모두 한국전쟁이 휴전에 돌입한 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작품이다. 그리고 전쟁 상황을 직접 겪으며 전쟁을 거부하고자 했던 민간인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은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만큼 오랜 세월 서로 인정 투쟁하고 많은 전쟁을 치렀기에, 그만큼 청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오욕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전쟁기 두 나라는 국제 사회의 역학 구도에 의해 긴밀하게 얽히게 되었으면서도 양국의 입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한국은 전장(戰場)이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민간인의 피해 상황에서 일본과 비할 바가 아니다. 다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를 구하는 민간인들이 전쟁에 말려들고 잠재적 ‘부역자’로 호명되기까지 하는 과정이 양국 모두에서 보이고 있었으며, 이 상황을 문학화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함께 논의할 의의를 갖는다. 이들 작품이 제기하는 전쟁의 실체와 국민국가 자체에 대한 질문은 트랜스내셔널의 관점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구상을 새로이 하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오늘날 현실에서 한국전쟁을 새롭게 의미화하는 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 자국과 제국 사이, 참전의 장치 - 다나카 고미마사의 「상륙」

일본에서 한국전쟁을 의미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전쟁 특수’이다. 이는 비단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전범국으로서의 국가 정체를 탈바꿈하게 하는 기회로 이어졌다. 즉 일본은 자유진영의 수호자 미국의 기지국으로 역할 하면서 미국의 ‘숭고’한 대의에 편승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1947년 시행된 헌법의 9조 ‘전쟁 포기’ 규정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지도,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겠다는 완전한 무장해제를 선언한 상태였다. 즉 한국전쟁에 일본이 참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었다. 이러한 인식적 토대 위에 재일조선인과 일본 공산당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반전(反戰)운동이 일어난다.¹⁰⁾ 이 움직임은 일본 내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대결로 읽히는 면이 있지만, 반전 의식이 작동하고 있었기에 사람들도 호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전쟁 참전을 표면화하지 않고 암암리에 진행하게 된다.¹¹⁾

문제는 이 사실상의 참전 상황 속에서 동원된 민간인과 관련된 점이다. 일본인의 한국전 참여는 전장(戰場) 바깥인 일본 영토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영토에서도 이루어졌다. 비행장이나 부두에서 하역 노동을 하고, 바다에서 소해 작업을 하거나, 취사병·간호병 등으로 참전했던 일본인에 대한 사항을 밝히는 자료 및 증언은 계속해서 존재했다.¹²⁾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중군을 했던 사람들이 권력

10) 하라 유스케, 「식민자의 아들이 싸운 한국전쟁」, 오타 오사무·허은 편, 『동아시아 냉전의 문화』, 소명, 2017, 270~282; 니시무라 히데키, 심아정 김정은 김수지 강민아 옮김, 『‘일본’에서 싸운 한국전쟁의 날들-재일조선인과 스타터사건』, 논형, 2020 참조

11)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일본에서 나온 입장에 대해서 이종판, 「한국전쟁과 일본: 한국전쟁당시 일본의 대응과 협력 내용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학회, 2003 확인. 한국전쟁 발발 2주 후 GHQ는 일본의 재군비를 논의하고 경찰예비대를 만들기도 했다.(니시무라 히데키, 앞의 책, 162쪽)

12) 정병욱, 「일본인이 겪은 한국전쟁」, 『역사비평』 91, 역사비평사, 2010; 남기정,

이나 부를 가진 상류층 일본인일 리는 없다. 결국에는 사회적 혼란과 궁핍 속에서 살길을 찾아야 했던 서민들이 직접 전장을 향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참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¹³⁾ 강제적이다시피 참전했어야 했던 일부 민간인들에게 이 상황은 자국이 미국의 속국과 다르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사안이었다.

다나카 고미마사가 1957년에 동인지 《시그마》를 통해 발표한 「상륙(上陸)」은 일본의 민간인이 전쟁에 동원되었던 모습을 다룬다. 이 작품이 같은 해 《신조(新調)》의 전국 동인잡지 우수 소설에 뽑혀 수록되기도 한 것은 일본 전쟁 특수의 이면에서 벌어진 이러한 현실 문제를 포착했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가 이 내용을 현실감 있게 작품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국전쟁기를 전후로 한 10여 년 동안 미군 기지에서 운반, 통역, 노동자 감독 등의 일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다.¹⁴⁾

작품의 주요 인물은 마약중독자 ‘산코’, 야쿠자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장’, 전쟁 참여가 싫은 ‘영감’, 2차대전 참전 경험이 있는 전(前)육군 중사 ‘남방’, 하트 문신을 한 소년 ‘뿔’¹⁵⁾, 전쟁을 혐오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던 ‘가슴팍이 왜소한 젊은이’, 입으로 기생충이 나올 만큼 건강이 좋지 못한 ‘포어맨’ 등이다. 이들은 직업안정소를 통해 도쿄에 있는 부두에서 하는 하역작업 일을 소개받고 승선했다.

앞의 책; 니시무라 히데키, 앞의 책; 양영조, 「주일미군기지 일본인노동자의 6.25 전쟁 중군활동과 귀환」, 『군사』 11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오가타 요시히로, 「6.25전쟁과 재일동포 참전 의용병: 이승만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7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0 등 참조.

13) 니시무라 히데키의 취재를 통한 증언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동원된 민간인이 바다 밑에서 소해 작업을 하다 사고사하거나 원하지 않는데도 간호사로 차출되어야 했던 상황, 부두나 비행장에서 고된 노역을 했던 상황 등에 놓인 일본인들이 잘 나타난다.(니시무라 히데키, 앞의 책 참조)

14) 이문호, 「다나카 고미마사와 한국전쟁-소설 「상륙(上陸)」의 고찰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81, 일본문화학회, 2019, 229~235쪽 참조.

15) 본문에서 이 소년은 ‘チンピラ’ 즉 ‘뿔마니’라고 불리기도 모자란 녀석이라는 의미로 ‘ピラ’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이에 ‘뿔’로 번역한다.

“블라디보스토크일지도 몰라. 블라디보스토크 적전상륙(敵前上陸)일까…….” 남방은 팔짱을 꼈다. / “만약 그렇다면, 나는 확실히 항의할 거야.” / 방한복을 입은 채로 누워서 뒹굴던 가슴팍이 왜소한 젊은이가, 급히 일어나 말했다. / “우리들은, 도쿄만의 하역작업이라고 해서 일하러 왔어. 살인을 하기 위해 고용된 것이 아니야.” / “도쿄만의 하역작업이라는 것은, 조선행이라는 거지” 산코는 충분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 남방은, 찌릿 하고 산코를 찌려보았으나 더이상, 남방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 “그래서,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 영감은 산코 쪽을 향해 앉았다. / “응, 그러니까, 다른 보잘 것 없는 일은 하지 않고 기다렸던 거야.” / “그런데 어떻게 조선행인 것을 알았지?” / “미군으로부터 직안에 오는 서류가 다르다구. 극비 서류야.” / “아” / 영감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산코와 뜰, 그리고 남방도 웃어댔다. 영감은 모두의 얼굴을 둘러보며, 조금하듯 물었다. / “모두들……, 다들 배에 타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 뜰은 웃으면서 말했다. / “나는 아무 것도 몰랐어. 그러나 동경만보다 조선 쪽이 재미있잖아.” / 웃지 않는 반장 쪽으로 바짝 다가가듯 해서, 영감은 반복했다. / “반장, 당신도 알고 있었어?” / “……응, 그렇네.” / 반장은 왼손으로 턱을 긁었다. 그 새끼손가락이 잘려있는 것에 산코는 신경이 쓰였다. 반장은 산코의 시선을 느꼈는지,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왼손을 내렸다. / “나는 싫어. 전쟁이 싫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해당하는 것도 싫어.” 가슴팍이 왜소한 젊은이는 입술을 물었다. / “그렇지만,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걸어 돌아갈 수도 없어.” / 언제나처럼, 산코가 놀리면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뜰도 남방도 더이상 웃지 않았다.¹⁶⁾

인용문은 인물들이 배 안의 선실에 둘러앉아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받지 못한 불안 속에서 서서히 한국행을 인지해가는 상황을 보여준다. 인물 중에는 배가 한국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눈치챈 사람들

16) 田中小実昌, 「上陸」、金石範 他 『コレクション1. 朝鮮と文学 朝鮮戦争』, 集英社, 2012, 437-439쪽. 필자 번역.

도 있지만, 누군가는 도쿄만으로, 또 누군가는 남방¹⁷⁾이나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 배의 한국행은 비밀이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 일본의 전쟁 참여가 떳떳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참전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일본인의 참전을 표현하기 위해 다나카 고미마사는 이러한 설정을 보여준 것이다. 의도치 않게 ‘참전’을 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전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참전을 헌법으로 금하는 나라에서 참전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와 헌법의 바깥으로 나가는 일인 것이다. 인공문에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한국행 및 참전에 대한 거부감은 이러한 이유들에 의한다. 그러나 이들 민간인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결국 “배에서 내려 바다를 걸어 돌아갈 수도 없”기에 체념하는 것이다. 이 모습은 일본의 한국전쟁 참여가 일본의 민간인들에게 불러일으킨 복잡한 감정을 반영한다.

하지만 인물들은 비 내리는 밤, 배가 ‘모지항¹⁸⁾’에 잠시 정박한 것을 알고는 하선을 도모한다. 이곳을 떠나면 이제 영영 참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역시 하선은 쉽지 않다.

일본인 경비원 앞뒤로 모두가 제각기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뜰이 줄사닥다리에 손을 걸었다. 그것을 발견한 경비는, 당황한 동작으로 뜰의 옆구리와 줄사닥다리 사이에 총을 밀어 넣었다.

17) 남방이란 동남아시아 쪽을 가리킨다. 당시에 인도차이나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다.

18) 모지(門司)항은 일본 기타큐슈에 있는 항구. 규슈 철도 관문으로 시모노세키, 고쿠라 등과 이어진다. 한국전쟁 당시 기타큐슈의 고쿠라항, 모지항은 한반도와 인접해, 수송 효율이 아주 좋았다. 최민경, 「규슈 지역 재일한인의 노동세계: 근대 모지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 참조.

“어이 어이, 뭘 하는 거야. 조선행 일본인 노무자는 절대 배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다.”¹⁹⁾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승선한 이들은 이제 하선할 자유가 없다. “조선행 일본인 노무자는 절대 배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다.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했던 일본인의 한국행 정황을 숨기기 위해서는 승선자를 함부로 하선시킬 수가 없으며, 이를 위해 “일본인 경비원”은 “총”을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무자들이 승선한 이후 배에서 내린 사람이 한 명 있긴 했다. 그는 배의 다른 방에 있던 사람으로, 사고가 나서 배에서 떨어진 자다. 경비원들이나 배 운전자들은 분명 그 사람이 배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물살에 휘말려 간 그를 구하기 위해 배를 멈추거나 구명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비밀리에, 그리고 강제적으로 전쟁에 얽혀든 이들에게 배에서 내리는 길, 즉 참전을 거부하는 길은 실질적으로 죽음의 길인 것이다. ‘한국행’과 ‘보호되지 않는 목숨’을 비로소 연결시키게 된 이들은 하선을 시도하지만 결국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하선을 금지당한 것이다.

「상륙」은 이처럼 참전을 거부할 수 없는 인물들의 상황을 통해 당시 일본에서 작동하고 있던 참전의 ‘장치’와, 이를 승인하는 폭력적 국가 권력을 보여준다. 이들의 목숨은 죽어도 그만인 정도로 험값이다. 인물들이 보여주는 무기력하고 불안한 모습은 일본의 한국전쟁 참여의 문제점들이 사회 내 약자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위태롭게 은폐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경제적 이익과 구체제의 복귀를 중심으로 쏠린 전쟁 특수가 개인들에게 요구했던 구체적 행위는 이 험벗은 신체를 통해 수행되었던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쟁 장치는 이처럼 민간인, 특히 가진 것 없는 하층민의 희생이라는 불합리를 자양분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다. 제국이었던 자국의 흔적이 새로운 제국의 힘을 등

19) 田中小実昌, Op. cit. 442~443쪽.

에 업고 재개되는 상황 속에서 민간인들은 속수무책이다. 강대국의 전쟁 수행 계획에 소모품처럼 놓여 있는 이들의 모습은, 2차대전 이후 다시 참전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일본의 전쟁 수행을 종용하는 미국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던 민간인들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전쟁 ‘장치’ 속에 무력하게 말려들어 그것에 힘을 실어주고 만다. 이들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한국인과는 또 다른 맥락에 있었던 일본의 한국전쟁 당사자였다. 한국전쟁기 한국과 일본의 민간인 피해를 이야기할 때 그 물리적 격차는 너무나 크다. 그렇지만 죽음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죽음이 다수의 죽음보다 가벼울 이유는 없다. 누군가의 죽음을 불러온 국가 폭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의 피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 이데올로기로 치환된 파시즘, 만들어지는 부역자

- 곽학송의 『철로』

냉전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이 적국이었던 미국에 복속되는 분절적 접합의 과정을 겪었다면, 한반도는 하나의 공동체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강제 분리·단절되는 절단의 기이함 속에서 이 시기를 맞이했다. 2차대전 이후 승전국들은 패전국 및 그 점령지 처리와 관련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법 찾기에 골몰한 상황이었다. 이들에게 한반도는 일본의 피해국이었지만 동시에 패전국의 연장이었기에 한반도 문제 처리에 정의를 구현할 필연적 이유는 사실상 없었다. 패전국이 아닌 패전국의 식민지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통치되는 상황이 한반도에 발생한 것은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다. 즉 한반도의 미·소 분할통치는 패전한 일본 및 일왕의 거취를 두고 일본과 승전국 간, 그리고 미국과 소련 간 이해관계의 입장 차에 의해 벌어진 상

황이었던 것이다.²⁰⁾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한반도에는 일제시대부터 이미 이데올로기 갈등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공산주의 사상이 조선으로 유입된 것은 근대 지식체계의 일부로서였다. 즉 조선의 지식인들이 자본주의 및 식민주의, 폭력적 사회 시스템, 그리고 그 총합으로서의 일제를 비판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지적 체계 중 하나로 공산주의·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했던 것이다.²¹⁾ 게다가 한반도 내에서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와 중국, 러시아 쪽으로 활동 영역을 옮기게 된다. 사회주의 성격이 강했던 곳에 근거지를 만들게 되면서 이들이 사회주의 사상과 친연성을 확대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사상은 이와 같은 상황적 맥락에 놓여 있었다. 즉 이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독립’을 선취하고 ‘민족’을 구하는 의식과 연결된다.

문제는 해방 정국에 미군이 남한 지역을 통치할 때 일제가 조선에 심어놓은 통치 시스템 및 인적 자원을 재활용했다는 점이다. 재가동되기 시작한 일제 통치 시스템에서 친일 부역자들은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 이들의 시각에서 귀환한 독립운동가들은 남한에 몇 개 안 되는 권력의 왕좌를 사이에 두고 ‘의자놀이’를 해야 하는 상대, 목숨을 걸고 배척해야 할 ‘적’이었다. 이후로 이 ‘적’의 범위는 독립운동가들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 더불어 친일 세력을 비판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쪽으로 확대된다. 미국과 반공주의의 기세를 등에 업은 친일반역자들에게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 ‘적’을 읊아낼 유용한 방편이었다.²²⁾

20) 최영호, 「일본의 항복과 한반도 분단」, 『역사문화연구』 6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7; 니시무라 히데키, 앞의 책, 130~133쪽.

21) 최병구, 「사회주의 문화 담론과 프로문학」, 『민족문화사연구』 49,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2; 이미림, 「1930년대 전반기 이효석 소설의 마르크시즘 차용 양상」, 『한민족어문학』 87, 한민족어문학회, 2020 참조.

22) 문학과사상연구회, 『해방기 문학의 재인식』, 소명, 2018; 이형선, 『해방기 문학과 주권민민의 정치성』, 소명, 2018 참조.

북한 측은 해방 정국 초기에 적어도 남한에 비해 일제 청산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독립운동에 공을 세웠다는 점에 힘입은 바 크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독립국을 세우는 데에 이보다 더 확고한 명분이 없었던 만큼 그는 북한 사회의 핵심 세력이 되어간다.²³⁾ 그러나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체제를 사회 내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억압적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통치 논리에 의해 많은 이들이 신체적 사회적 학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²⁴⁾ 가진 것을 잃고 월남한 자들이 남한에서 서북청년단 등 과격한 반공주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에는 이러한 사정도 작용했다. 결국 김일성은 이러한 여세를 몰아 한반도 전체를 공산국가로 만들고자 계획하고 전쟁을 준비했다. 이때에도 이데올로기는 나와 적을 구분하고 억압하는 절대적 기준선이 되었다.

3·8선과 분단이 한반도 내에서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게 되는 과정에는 이데올로기 문제와 더불어 이와 같이 남북을 통틀어 보이는 사회 지도층 세력들의 과잉된 권력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²⁵⁾ 남한과 북한 양측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독재체제는 일제의 파시즘 체제와 별반 차이 나지 않는 폭력적 국가 장치를 공산주의 혹은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치환시켜버린다. 해방된 한반도가 적절한 가치 질서나

23) 신형기, 「인민의 국가, 망각의 언어-인민의 국가를 그린 해방직후의 기행문들」,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2015; 오성호, 「북한문학의 민족주의적 성격 연구」, 『배달말』 55, 배달말학회, 2014.

24) 김재웅, 「38선 분쟁과 접경지역 위기에 대처한 북한의 민간인 동원정책」, 『한국학논총』 4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복현사림』 37, 경북사학회, 2019; 하신애, 「개혁의 맹점과 도덕적 공동체의 부재」, 『국제어문』 84, 국제어문학회, 2020 등 참조. 이영식의 『빨치산』(행림출판, 1988), 이인모의 『전 인민군 중군기자 수기, 이인모』(신준영 정리, 월간 말, 1992), 주영복의 『내가 겪은 조선전쟁』(고려원, 1991) 등의 수기들을 보면 해방기 및 한국전쟁기에 북한 체제가 억압적인 형태로 주민들을 통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5) 목타르 루비스, 『인도네시아인의 눈에 비친 6.25전쟁』, 전태현 옮김, 어문학사, 2017 참조.

연대의식 확립의 장이 되지 못하고 관념과 수사로 가득한 이데올로기의 격전장이 된 것은 이러한 상황에 의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 시기 우리 사회는 전쟁 장치가 구축되면서 그에 적절한 주체화를 개인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남한 사람들은 반공이데올로기와 자유진영의 가치에 대한 복종을 내세우지 않는 이상 남한 사람이 될 수 없었고 북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에의 복종이 사회 구성원의 자격이었다. 과격한 흑백논리로 적용된 이데올로기를 따라 사람들은 손쉽게 호모 사케르로 전락했다.

이에 민간인의 위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대부분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특정 이데올로기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하고 절대복종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남측과 북측 간에 밀고 밀리는 과정이 지난하게 계속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제 북측의 점령지였던 곳이 오늘 남측의 점령지가 되고 다음 날은 또 어느 세력이 그곳을 차지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점령자가 누구든,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든 사람들은 이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였다.²⁶⁾ 이들에게 국군이든 인민군이든 유엔군이든 모두가 거대한 총부리일 뿐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폭력 앞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웃은 물론 친인척 사이에서도 서로를 밀고하거나 학살하는 일이 빚어졌고 그것으로 인해 또 다시 회복 살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점이다.²⁷⁾ 피아의 구분이 사상검증이라는 형태로 지속되어야 했던 상황 속에서 의심과 의혹이 불거지는 모든 곳이 바로 전선(戰線)이었다. 이와 같은 전반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손쉽게 동조자 혹은 부역자로 치부되고, 각 개인이 자유롭게 추구하던 삶의 영역은 박탈되고 만다. 곽학송의 『철로』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처한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비판의 시선을 보낸다.

26) 세르주 브롱베르제 엮음, 『한국전쟁통신』(정진국 옮김, 눈빛, 2012), 앤드루 새먼, 『그울리 대지와 검은 눈』(이동훈 옮김, 책미래, 2015), 목타르 루비스, 앞의 책 등의 수기를 보면 전쟁 당시 한반도의 민간인들은 군인을 보면 그 소속이 어디든 강한 공포를 느꼈음을 진술하는 부분이 자주 등장한다.

27) 최호근, 앞의 책 참조.

평안북도 정주 출신의 곽학송은 1948년 북한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피해 월남했으며, 1953년에 등단한 이후 꾸준히 활동했다. 장편소설 『철로』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인민군에 점령되었다가 국군에 의해 탈환되는 등 복잡한 상황에 놓인 한 마을의 철도국 현장 직원 ‘현수’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선 철도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한반도, 그리고 일상이 이데올로기로 도포되어 버린 전장을 표상한다. 남달리 철도국의 일을 사랑하는 ‘현수’는 이처럼 갑자기 덮쳐온 전쟁 앞에서도 철도를 정상적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실제로 작가는 용산철도학교에서 공부하고 1948년부터 평양 철도국에서 현장직원으로 일했으며, 월남 이후에도 서울의 철도국에서 근무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곽학송의 이력과 경험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²⁸⁾.

‘현수’는 사람들의 삶을 틀 짓는 질서나 체계로부터 벗어나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고 ‘현수’를 둘러싼 상황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저 철도국 시설과 레일을 관리하며 주변에 폐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현수’지만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는 그의 모든 행위가 이데올로기적 기준으로 규정당하기 시작한다. 그가 일하는 철도국은 전쟁 직후 폭격으로 파괴된 채 공산당에게 점령되었다. ‘현수’는 전쟁과 무관하게 그저 폭파된 철도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쓴다. 그가 송수신기 수리를 하다 부상까지 입게 되면서 공산당은 ‘현수’가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입당을 ‘허락’한다. 철도국 책임자로 내려온 ‘강’은 선심 쓰듯, 그리고 격려하듯 ‘현수’에게 입당원서를 들이민다. 그러나 ‘현수’는 당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또는 입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 상황상 ‘현수’의 철도국 내 지위는 올라가지만 그는 그것에도 무관심하다. 하지만

28) 박인준, 『곽학송 소설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6쪽. 이 작가에 대한 연구로 박인준의 논문이 많은 참조가 되었다. 곽학송의 작품 세계는 아직 학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면이 많아 앞으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강’은 계속해서 ‘현수’에게 입당을 요구한다.

어느새 용산 복구대의 책임자 격이 되어버린 현수는 저녁이면 거기에 모여드는 통신수들을 데리고 용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온통 무슨 주검처럼 자빠져 있는 전화기, 교환대, 동선 멍치들, 그리고 책상으로 삼은 궤짝 뒤에 안장 있는 강은 현수를 보자 오늘도 무슨 버릇처럼 입당을 권고하는 것이었다.

“좀더 시간을 주십시오.”

현수는 본능적으로 거절한다. 그러나 그건 거절이라기보다는 핑계인지도 모른다.

“난 동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소! 안동무를 반동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소. 또 안동무를 반동으로 상부에 보고도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동무는 나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옳을 것이요!” (중략)

“알았소! 동무의 진실을 알았소! 동무는 이기호와 마찬가지로 반동이요! 반동이기 때문에 입당을 거부하는 것이요. (중략)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그대로 상부에 보고할 것이요!”²⁹⁾

‘강’의 머릿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공산당’ 아니면 ‘적’ 뿐이다. 그러나 ‘현수’는 입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계속 거절하고, 이에 대해 ‘강’은 “알 수 없는” ‘현수’의 “마음”에 대해 ‘의심’하게까지 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둘로 나누어 보는 것 이외에 다른 존재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전쟁 ‘장치’가 ‘강’의 언행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철도국 일에 열심인 ‘현수’가 적일 수는 없지만 공산당이 되기는 거절하는 ‘현수’를 ‘강’은 이해할 수 없다. ‘현수’는 북한의 통치 ‘장치’에 부합하는 주체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강’은 “상부에 보고도 않을 것”이니 자신의 “말을 듣”도록 요구하다가 이내 “입당을 거부하는” ‘현수’는 “반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부에 보

29) 곽학송, 「철로」, 송병수 편, 『한국소설문학대계38, 쏘리 김·철로외』, 동아출판사, 1995 359~360쪽.

고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등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찌면 필연적이다. 이는 비단 공산당의 입장만이 아니다. 인용문에 등장하는 ‘기호’는 공산당에 가입까지 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남한측 유격대 소속의 스파이다. 그는 ‘현수’의 친구로서 ‘현수’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기에 그가 공산당일 수는 없음을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데올로기 앞에서 ‘현수’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그 명확함이란 역시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남쪽이나 북쪽이나의 양자택일이다.

“난 자네의 입대를 절대 바라네…….”

하면서 기호는 허리춤에서 언젠가 내놓았던 것과 똑같은 흰 손수건 하나를 꺼내 놓았다.

“역시 이게 대원의 증거품일세 이제 가담하기는 좀 뭇하겠지만 자네 행동에 대

해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기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풀어 놓았다.³⁰⁾

‘기호’는 이미 ‘현수’에게 유격대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인용문에서 ‘기호’는 그때처럼 ‘현수’ 앞에 “흰 손수건”을 꺼내 놓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태극기를 그리고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가담하”는 것이 늦었는지 모르지만 ‘현수’가 남측 편임을 자신이 “책임”질 테니 가입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현수’는 ‘기호’의 이러한 요구에 응할 마음이 없다. 게다가 이번에는 ‘기호’가 “권총을 풀어” 옆에 뚫으로 해서 자신의 요청이 단순한 권유가 아닌 ‘명령’이자 ‘협박’임을 보여준다. 아무리 오랜 세월 친구로 보낸 사이라 하더라도 이 전쟁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양자택일하지 않을 때에는 공존할 수 없음을 ‘기호’는 명확히 한 것이다.

30) 위의 책, 376쪽.

결국 북측이나 남측 모두 ‘현수’ 자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의사는 없다. 오롯이 자신들의 규칙에 복종할 것을 맹세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이다. 하지만 따라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현수’이기에 특정 이데올로기에 복종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직업적 충실함을 토대로 철도 국과 철로를 관리할 뿐이다. 그것이 인민군들에게는 공산당에 충성하는 체제 순응의 모습으로, 국군에게는 어리석은 부역 행위로 비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정답을 정해놓은 체제 안에서 그것은 답이 될 수 없고, ‘현수’의 존재 방식은 파악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당시 한반도는 이데올로기가 허락하는 영역의 바깥에는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는 사회였다. 여기에 당시 이데올로기가 강제하는 전쟁의 ‘장치’와 그것이 요청하는 주체의 면모가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사용된 포화의 양이 상당했음을 밝히는 통계들이 많다.³¹⁾ 그만큼 한반도에는 무수한 폭격이 있었고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이 가져 마땅한 보호장치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그만큼 한국전쟁 당시에 왜 한국이 분단되어야 했든가, 왜 개인의 가치관과 존재 방식이 무조건 포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곽학송의 『철로』는 반공이데올로기를 표방하지 않는 존재들이 체제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는 일련의 과정을 존재론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31)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편,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0, 301쪽.

4. 탈선하는 신체들

「상륙」에는 일본에서 암암리에 알려져 있던 민간인들의 한국전쟁 참전 문제를 작품화했다. 그리고 『철로』에서는 이데올로기를 초과하는 개별적 민간인 주체의 존재 방식을 말살하는 전장의 폭력성을 드러내었다. 전쟁에 휘말리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통치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주체들, 한국전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통치 논리에 의해 강제된 주체들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아감벤이 언급했듯 ‘장치’는 “일련의 실천, 담론, 앞, 훈련을 통해 순종적이지만 자유로운 신체를 만들어”³²⁾내는 것에 성공해야 현실 위에 안착 가능했다. 두 작품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이 겪는 곤란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은 민간인들이 전쟁의 폭력에 희생되어 스러져가는 모습만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쟁 ‘장치’ 앞에서 이탈에 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는다. 애초에 ‘장치’에는 존재론과 실천 사이의 분열이 은폐되어 있다. 두 작품이 인물들은 그 분열을 주조하는 “통치될 수 없는 것”³³⁾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륙」의 인물들은 전쟁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된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탈선(脫船)을 시도한다. 『철로』의 ‘현수’는 인민군과 국군이 제각각 규정하는 열차 선로의 의미를 거부한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선로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부여된 의미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점에서 탈선(脫線)이다. 이러한 ‘통치될 수 없는 것’들은 통치질서와 대결할 만큼 강할 수는 없지만, 통치의 폭력성을 공회전하게는 만든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조선행이라고 확실히 들으니 쇼크였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조선행이라는 계약은…….” 가슴팍이 왜소한

32)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41쪽.

33) 위의 책, 48쪽.

젊은이가 경비에게 대들었지만, 산코가 막았다.

“그런 것은 이 사람에게 말해도 소용없어.”

모두는 입을 다물고 트랩을 떠나 해치까지 돌아왔으나, 거기서 자
연히 발을 멈추고 쭈그리고 빙 둘러앉았다. 곧이어 산코가 말했다.

“경비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리자.”

모두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내지 땅을 밟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고리타분한 남방의 말에도, 아무도 놀리려 하지 않았다.

어쨌든,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³⁴⁾

인용 부분은 「상륙」의 인물들이 일본에서의 마지막 정박지인 모지항
에서 배의 조선행을 확실히 알게 된 뒤 하선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인용
문에서 보듯 이들은 고민도 갈등도 없이 하선을 결정한다. 내심 전쟁터
에 닿기를 기다리는 듯한 ‘남방’도 배가 “조선”으로 향하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이후에는 하선을 오히려 주도한다. 하지만 애초에 이 배에 올라
타는 순간 이들은 각자의 의지나 입장과 상관없이 전쟁 수행 중인 미군
의 물자 운송 체계 안에 깊숙이 예속된 상태다. 통치 권력의 결정 앞에
서 하층민 몇 명의 자유의사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들의 탈출은 단순히
일터를 이탈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 중에 탈영하는 이적행위가 되어버
린다. 때문에 이들이 하선을 선택하는 것은 전쟁 참여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기도 하다. 인물들의 하선 시도는 이유도 모른 채 참전하는
공포와 불안의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 실천이며, 국가에 의해
아무런 기본적 인권 보장의 여지를 확인받지 못한 채 강제된 현실을 자
각하고 거부하는 주체적 순간이다. 더불어 전쟁이라는 비인간적 상황
에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오려는 탈주 결정과 마주하는 현상이기도 하
다. 그리고 이들이 배에서 내려 달려나가지만 결국 ‘미군’과 ‘일본인 경
비’의 ‘총알’을 피해 달아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이 탈주의 비극

34) 田中小実昌, Op. cit. 443쪽.

적 결말로 이어진다. 이러한 서사 진행을 통해 작가는 전쟁 참여의 불합리함을 천명하는 것이다.

“멈춰, 멈춰! 멈추지 않으면 쏜다!” 트랩의 일본인 경비원은 총을 잡았다. 톨이 선두였다. 영감의 발도 빨라서 남방과 나란히 있었다. 그 다음이 산코, 가슴팍이 왜소한 젊은이가 조금 뒤에,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포어맨이 맨 뒤에서 달리고 있었다. / “쏜다! 쏜다!” / 경비의 손가락은 총의 방아쇠에 걸려있었다. 다른 한 사람의 경비도 총을 어깨에서 내려, 뺏머리 쪽에서 달려왔다. / “스툼! 헤이, 스팀!” 전차부대의 마스터 서전이 뺏머리로 왔다. 손에는 군용 45구경 권총을 쥐어 있었다. / 그때 포어맨이 앞으로 고꾸라질 뻔 하며 ‘엇’하는 소리를 냈다. 가슴팍이 왜소한 젊은이는 달리면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대로 두 세 걸음 가다, 발을 멈추고 포어맨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톨의 모습이 서치라이트의 빛 밖으로 사라졌다. / “스툼!” / 전차부대 마스터 서전의 권총이 불을 뿜었다. 그 소리에 포어맨을 안아 일으키고 있던 가슴팍이 왜소한 젊은이가 양손을 놓고 뒤돌아왔다. / 그와 동시에 ‘텅’하는 것 같은 산탄 소리가 났다. 전차부대 마스터 서전의 권총이 소리를 내는 순간, 총의 방아쇠에 걸려있던 경비의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움직인 것이었다. 가슴팍이 왜소한 젊은이가 뒤돌아들어 올린 양손과 얼굴의 한쪽에서 피가 튀었다. 그는 포어맨의 몸위로 하늘을 보며 쓰러져, 피가 흐르는 손으로, 역시 피가 흐르는 얼굴을 감쌌다. 반장은 뺏전에 뛰어올라갔다. 그러나 그물망에서 발을 내리며, 경비와 전차부대의 마스터 서전 쪽을 돌아봤다. 창고 옆에서 총성이 일었다. 자동소총 같은, 연속적인 소리였다.³⁵⁾

인용문은 배에서 도망치는 인물들을 발견한 일본인 경비원과 미군이 이들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자 하는 합헌적 의지를 가진 일반인이, 자국민과 동맹국 군인의 총부리 앞에 노출되는 장면을 형상화해 전쟁이 가

35) Ibid. 447-448쪽.

진 무차별적 폭력성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의 전쟁 참여 의지가 결과적으로 자국민을 공격하는 자멸의 방향임이 이 장면에서 드러난다. 게다가 그 총에 죽임을 당하는 자는 전쟁의 폭력성을 비판했던 ‘가슴팍이 왜소한 젊은이’다. 그는 전쟁터에서 병사 한 명의 목숨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희생되는 것에 울분을 표하던 인물이다. 바로 그가 날아오는 총탄 사이로 넘어진 ‘포어맨’을 구하고자 달려가는 윤리적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는 전쟁의 잔혹함을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한다. 인물들의 탈선(脫船)은 이러한 비극으로 끝나고 만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일본 정부가 한국전쟁에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을 보내는 정책을 취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전장에 도달하지는 않지만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탈하지도 못한 이들의 모습은 전쟁의 참혹함과 비인간성, 참전을 주도한 일본 정부와 미국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철로』에서는 주인공 ‘현수’ 자체가 탈선(脫線)·탈주하는 의식을 표상하는 자다. 7일로 이루어지는 일주일 제도에 답답함을 느낄 만큼 그의 사고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통상적인 관념의 틀도 ‘현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전쟁 중에 아무리 긴박한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그는 누군가에 의존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 직업적 책임감, 철도국 운영과 관련해 진행되는 통신악어 연구, 그리고 자꾸 마음이 가는 ‘순이’만이 그에게는 중요할 뿐이다. ‘순이’의 말에 의하면 ‘현수’는 “개인주의자”³⁶⁾요, ‘현수’ 자신의 말로는 “말하자면 나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소일(消日) 방법이 좀 다른”³⁷⁾ 자다. 전쟁 상황 속에서 생존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친구, 가족, 약혼자 등의 선의 앞에서도 ‘현수’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켜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탈선의 기본적 의미가 ‘기차의 바퀴가 선로를 벗어남’을 가리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현수’는 이 탈선을

36) 곽학송, 『철로』, 앞의 책, 322쪽.

37) 위의 책, 305쪽.

용납하지 않는 자다. 제대로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를 관리하고 지지하는 일이 ‘현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수’가 처한 현실에는 특정 사회 체제를 위해 잘 달리던 기차를 임의로 조작하고 파괴하려 하는 자들이 득세해 있다. 이러한 권력자들의 시선에서 보면 선로를 지키는 현수의 행위가 탈선(脫線)이요 탈-선(脫-善)이다. 결국 ‘현수’와 권력자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물론 나는 권리가 없소. 그러나 당신도 권리가 없소. 권리라는 건 누구에게나 없는 것이오. 그러나 나는 당신의 행동을 저지할 필요를 느끼고 있소. 당신이 당신의 상전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든 어쨌든 이걸 파괴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나는 나대로 당신의 행동을 저지할 필요를 느끼고 있을 뿐이오”³⁸⁾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현수’의 일터인 철도국을 장악하고 있던 공산당들은 파괴된 선로를 고칠 것을 사람들에게 강제했다. 이는 철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수’의 의지와 일치했기에 그가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전세가 역전되고 공산당들이 도주하게 되었을 때 공산당 ‘강’은 상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철도의 배전반을 파괴하려 한다. 고친 열차와 선로가 적군에 유리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인용문은 이를 목격한 ‘현수’가 그 행위를 저지하면서 하는 말이다. ‘현수’가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방식이 파괴적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논리를 타인에게 강요하지도, 그와 다른 논리를 손쉽게 평가절하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할 “권리”가 자신에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자신의 방식을 “파괴”하는 순간에는 그러한 “행동을 저지할 필요”를 인식하고, 자신의 여력이 닿는 한 자기 의지를 관철하고자 애쓴다. 그런 점에서 ‘현수’가 말

38) 위의 책, 384쪽.

하는 “필요”라는 말 속에는 ‘정의’와 ‘당위’의 의미가 담겨 있다. ‘현수’가 인민군이 쫓겨나는 마지막 날까지 출근하여 사람들에게 부역자라는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당당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관점에 의한다. 국군이 장악한 철도국에 여느 날처럼 출근해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느끼며 현수는 마음 속으로 “다만 나는 앞으로도 지난 석 달 동안처럼, 그 이전의 이십여 년간처럼 나에게 마련된 영토 안에서 나에게 부여된 시간 위에서 가장 타당한 행동을 취하면 되는 것”³⁹⁾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것이 ‘현수’의 탈주선, ‘장치’가 요구하는 ‘주체화’에 대해 역행하는 주체화다. 「상륙」에서 인물들이 전장에 도달하는 것을 거부하는 탈주선을 그렸다면, ‘현수’는 전장으로 장악된 현실을 전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의지를 버리지 않음으로써 전장에서 탈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그가 기차의 레일을 지키는 행위뿐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 ‘순이’와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안선생은 왜 저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전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했어요. 다만 이 한 가지만 못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몫쓸 놈들과 홑쓸려 다닐 때 왜 안선생은 잠자코 계셨어요……”

현수는 번개같이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순이의 말대로 그때 내가 순이의 행동을 말했던들 오늘 순이는 죽어 가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현수는 역시 순이를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건 순이를 사랑하지 않은 탓이거나 경계가 있었던 탓이거나 한 것은 아니다. 형태야 어떻든 간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었고, 지금도 역시 그런 것이다. 그때도 순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순이의 마음은 잠시도 잘못됨이 없었음은 지도 모르는 것이다.⁴⁰⁾

39) 위의 책, 417쪽.

40) 위의 책, 403-404쪽.

전쟁 발발 전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열혈 공산주의자 ‘순이’는 이데올로기에 따르는 기계가 되기를 강요하는 공산당 활동에 염증을 느끼고 후회한다.⁴¹⁾ 그래서 그녀는 국군을 피해 도망하는 인민군 무리로 부터 벗어나 사랑하는 ‘현수’를 찾아온다. 국군이 점령한 곳에서 공산당과 함께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수’ 식의 ‘필요’의 논리에서 볼 때 그에게는 ‘순이’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는 ‘순이’가 기거할 곳을 제공하고자 그녀를 집으로 데려간다. 다른 가족들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고 안전한 서울로 피난길을 떠난다. 하지만 그는 그것 역시 ‘필요’치 않다고 느끼고 그녀와 단둘이 집에 남는다. 다음 날 ‘순이’는 포탄 파편을 맞고 죽게 되는데, 인용문은 죽기 전 ‘순이’의 말과 이에 대한 ‘현수’의 생각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 그는 그녀가 사람들을 공산당에 입당하도록 종용했던 행동이 많은 무리를 일으켰음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⁴²⁾ 하지만 ‘현수’는 그녀가 지금까지 그가 목격했던 다른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즉 생존의 요령과 권세를 좇아 하루 아침에 얼굴을 바꾸는 사람과는 다르다고 본다. 그녀의 행동에는 “진심”이 있었기에 “의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회심을 했으니 과거에 대해 더이상 따질 바도 없다. 오직 과거에 그가 그녀의 행동에 “잠자코” 있지 않고 “꾸짖”었다면 지금 그녀가 죽음에 처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결국 ‘순이’와 함께 한 이틀간은 뒷날 그가 공산당 사람이며 부역자라는 혐의로부터 놓여나지

41) 『철로』에서 작가는 ‘현수’라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캐릭터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배타적인 작동방식을 비판한다. 하지만 다른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는 자유주의와 국군의 승리를 긍정하고, 인민군과 공산세력에 대한 처벌과 응징을 지향하고 있다. ‘순이’ 역시 그러한 서사 전개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42) “그네가 가진 미모와 총명을 무기로 무지한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파업이란 것을 일삼아 평화스럽던 직장 내를 소란케 한 일은 비롯하여 그네가 몇 년 동안 하여 온 일이란 모두 나와 그리고 나의 생존에 필요한 온갖 것의 말살을 위한 행동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건 벌써 지난 일이다. 그네가 그런 마음을 온통 버리고 이렇게 있는 바에야 닦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그네의 과거의 행동에 대한 적당한 결과는 닦쳐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네를 처벌할 권한도 능력도 또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위의 책, 399쪽)

못하게 되는 결정적 근거가 되고 만다.

특정 이데올로기가 정의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현수’의 독자적 의지는 이와 같이 탈선(脫線)이자 탈-선(脫-善)이며 ‘장치’로부터의 이탈이었다. ‘현수’는 정의나 선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그들이 은폐하고 있는 위선과 위악, 거짓과 모순을 꿰뚫고 있다. 어제까지 남한을 지지하다가 이내 북한을 지지한다든지, 자신에게 권력이 쥐어지면 그 전에 권력 가진 자가 휘두르던 폭력에 고통받았던 과거를 잊고 마찬가지로 폭력적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현수’는 놓치지 않는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이데올로기가 선한지, 혹은 정의로운지 여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다만 이데올로기가 준 권력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그 영향력 안에서 자기 몫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일 뿐인 사람들의 모습을 ‘현수’는 계속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장치’가 이데올로기 ‘바깥’에 있는 자를 틀에 ‘미달’하는 자로 치환하고 그 존재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문제제기 한다. 이데올로기가 절대시되는 현실 속에서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전면화했다는 점은 『철로』가 이룬 문학적 성과 중의 하나다.

전쟁은 국가 혹은 그에 준하는 단체 간에 벌어지는 무력을 통한 싸움이다. 이 싸움의 이유는 무엇보다 공동체를 유지 보호하여 사회 내부의 개개인과 이들이 구성한 작은 공동체가 영위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의 ‘기조’를 권력자들의 관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 팽창시키기 위해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에도 그 근본에는 국민을 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전쟁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배타성이 극심하다 보니 다른 공동체에 속한 민간인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시와 공격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같은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방해되거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손쉽게 제거 대상이 된다. 전쟁이라는 통치 기제는 사람을 ‘사람’이 아닌 ‘무엇’으로 수단화한다. 「상륙」과 『철로』는 바로 이 순간에 ‘통치될 수 없는’ 자들, 통치 장치로부터 탈선한 자

들이 스스로 ‘무엇’이 아닌 ‘사람’으로 의미화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나오며 - 신냉전 시대의 메타 의식과 평화 구상

한국전쟁은 2차 대전의 종식 이후 만들어진 냉전 구도의 고착화를 알린 열전이었다. 이 과정에서 2차대전을 겪는 동안 세계적으로 확대된 병력과 무기가 흡수되었고 파시즘 체제와 이에 대한 응전의 폭력적 동일화 이데올로기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이데올로기로 치환되었다. 이 전쟁이 국제전이자 이데올로기전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의한다. 때문에 한국전쟁의 정체를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국적 관점에 고착된 시선이 아니라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에서 당시의 이면과 암면을 조망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특히 여전히 전쟁 종식을 선언하지 못한 오늘날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전쟁의 실체를 다각적 구도에서 살펴보는 일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다나가 고미마사의 「상륙」과 곽학송의 『철로』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이웃한 두 나라의 민간인들이 전쟁에 휘말리는 과정의 일단을 보여준다. 의지대로 사는 길은 물론,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용인한 적이 없는 인물들이 전장에 놓이는 이 상황은 민간인이 전쟁을 감당할 때 가지는 열악한 사회적 위상이다. 일본과 한국이 한국전쟁 당시 처해 있던 상황이 같을 수는 없다. 오히려 각국은 서로의 존재가 원인이 되어 전혀 다른 결과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실존적 부조리를 보게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민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했던 참전의 ‘장치’가 있었음을 이 작품들은 보여준다. 부역자 혹은 반역자로 손쉽게 규정되어 버리는 민간인의 면모, 그래서 공식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하는 민간인들의 입장이 실재와 상상의 경계선

에 존재하는 문학적 글을 통해 그 존재를 세계로 발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국제전의 관점에서 일별하고 세계사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과정은 각국의 입장을 넘어 전쟁을 만들어낸 역사 맥락을 지속적으로 현재화하는 유의미한 시각이다. 특정 이념의 틀로 한국전쟁을 박제화하면 이 전쟁에서 권력자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시하거나 은폐한 사실들이 세상에 드러날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들에 대한 일신 없이 국제적 장에서 자국의 입장만 내세우는 관점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 다나카 고미마사의 「상륙」만 하더라도 이 작품 속 인물들의 모습에는 전쟁의 가해자였던 과거 모습과 피해자로서의 얼굴이 중첩되어 있고, 참전에 대한 능동성과 수동성의 경계에서 생기는 방향이 보인다. 그리고 2차대전과 냉전 질서, 한국전쟁 발발을 단절적으로 보려는 면모 역시 드러난다. 때문에 한국전쟁기를 문학화 할 때 한반도나 한국전쟁에 대한 가치 판단을 드러내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⁴³⁾ 곽학송의 「철로」 역시 ‘호국’이라는 대의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참전한 ‘호국영령’들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를 갖는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현실을 ‘신냉전’ 시대로 여기는 것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포스트 냉전’ 시대의 평화 질서를 구성해나갈 초국적 길을 탐색할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 이 작품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새로운 읽기는 필요해 보인다.

국제전이자 이데올로기전이었던 한국전쟁에는 민족과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을 통할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는 의미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입장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상충하는 부분이 많으며, 민족적 관점에서 자유롭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이 부분들에 대해 상대국가의 관점에 대해 알아가

43) 남상욱, 「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한국전쟁과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참조.

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두는 작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 토대들을 쌓아갈 때 과장되거나 축소된 역사적 기억을 펼쳐내고 가치와 입장의 불균질성을 감당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을 정립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의 진정성은 서로 간에 안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전면화하는 불편한 상황 앞에서의 정치적·개인적 선택들 속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전쟁의 부재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그 자체로 평화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장치’의 고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대해 다나카 고미마사의 「상륙」과 곽학송의 『철로』에 대한 비교 고찰은 모종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Ⅰ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田中小実昌, 「上陸」、金石範 他, 『コレクション1. 朝鮮と文学 朝鮮戦争』, 集英社, 2012.
- 곽학송, 「철로」, 송병수 편, 『한국소설문학대계38, 쏘리 김·철로外』, 동아출판사, 1995.

2. 논문 및 단행본

- 김 균, 「미국의 대외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 2007.
- 김일환·정준영, 「냉전의 사회과학과 ‘실침장’으로서 한국전쟁」, 『역사비평』 118, 역사비평사, 2017.
- 김재용, 「38선 분쟁과 접경지역 위기에 대처한 북한의 민간인 동원정책」, 『한국학논총』 4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김학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20세기의 내전」, 『아세아연구』 14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남상욱, 「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한국전쟁과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 노영기,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관한 자료 실태와 연구현황」, 『역사와현실』 54, 한국역사연구회, 2004.
- 니시무라 히데키, 심아정 김정은 김수지 강민아 옮김, 『‘일본’에서 싸운 한국전쟁의 날들-재일조선인과 스타타사건』, 논형, 2020.
- 문학과사상연구회, 『해방기 문학의 재인식』, 소명, 2018.
- 박인준, 「곽학송 소설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서중석,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학살의 연구 방향」, 『사림』 36, 수선사학회, 2010.
- 세르주 브롱베르제 역음, 정진국 옮김, 『한국전쟁통신』, 눈빛, 2012.
- 손경호, 「최근 한국전쟁 연구동향-2005년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5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 신형기, 「인민의 국가, 망각의 언어-인민의 국가를 그린 해방직후의 기행문들」,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2015.
- 앤드루 새먼, 이동훈 옮김, 『그을린 대지와 검은 눈』, 책미래, 2015.
- 양영조, 「주일미군기지 일본인노무자의 6.25전쟁 중군활동과 귀환」, 『군사』 11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 오가타 요시히로, 「6.25전쟁과 재일동포 참전 의용병: 이승만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7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0.
- 오성호, 「북한문학의 민족주의적 성격 연구」, 『배달말』 55, 배달말학회, 2014.
- 오타 오사무 · 허은 편, 『동아시아 냉전의 문화』, 소명, 2017.
- 이문호, 「다나카 고미마사와 한국전쟁-소설 「상륙(上陸)」의 고찰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81, 일본문화학회, 2019.
- 이미림, 「1930년대 전반기 이효석 소설의 마르크시즘 차용 양상」, 『한민족어문학』 87, 한민족어문학회, 2020.
- 이상호, 「한국전쟁기 맥아더사령부의 뼈라 선전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58,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 이신철, 「6.25남북전쟁시기 이북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역사와현실』 54, 한국역사연구회, 2004.
- 이윤규, 「6.25전쟁과 심리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0.
- 이종판, 「한국전쟁과 일본: 한국전쟁당시 일본의 대응과 협력 내용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학회, 2003.

- 이행선, 『해방기 문학과 주권인민의 정치성』, 소명, 2018.
-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복현사림』 37, 경북사학회, 2019.
- 정병욱, 「일본인이 겪은 한국전쟁」, 『역사비평』 91, 역사비평사, 2010.
-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빼라 심리전과 냉전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 조르조 아감벤, 양창렬 옮김, 『장치란 무엇인가?』, 난장, 2010.
- 최민경, 「규슈 지역 재일한인의 노동세계: 근대 모지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
- 최병구, 「사회주의 문화 담론과 프로문학」, 『민족문학사연구』 49,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 최영호, 「일본의 항복과 한반도 분단」, 『역사문화연구』 62, 한국외국어대 역사문화연구소, 2017.
- 최호근, 『기념의 미래』,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하신애, 「개혁의 맹점과 도덕적 공동체의 부재」, 『국제어문』 84, 국제어문학회, 2020.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편,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0.
- 한규한, 「한국전쟁, 누구의 전쟁인가?」, 『마르크스21』, 책갈피, 2010.
- 허 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 냉전시대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Civilian Representation
in the Korean War
—Focusing on the “Landing” of Tanaka Gomimasa
and the “Railroad” of Gwak Hak-song

Lee, Hee-w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War was a civil wa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an intense international war created during the global establishment of the Cold War order after World War II. Several countries and nations involved in the political arena built a new sphere of power, leaving behind a complex series of historical events, meanings, and past values. The surface layer of this relationship was embodied in the name of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free camps and communist camps. The reason why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friendly and enemy forces came about as a result of ideology. When the essential and sufficient conditions to ensure the inevitability of the war are the existence of the ‘enemy’, the enemy’s identity during the Korean War was extracted from the abstraction area called, ‘ideology.’ In terms of the dispositif which Agamben refers to, the “dispositif of war” which triggered the Korean War consisted of a framework of international dynamics and anti-communist ideology. In the context of this dispositif, there is no inevitable causality between an idea and an action. When ideas dominate practice, the incomprehensibility of specific situations and the absurdity of violence will arise. As this ideology waged war,

it was inevitable that numerous civilians would be harmed in the process. The narratives of civilian victims, which have still not been properly discussed in official historical outlets for many years, have left traces of evidence in the form of literary works, testimonies, and handwritten artifacts. Critically examining the scope of this situation,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Landing’ by Tanaka Gomimasa (“Sigma”, 1957) and Haksong’s “Railroad” (“Transportation”, 1955-1956).

In the “landing” of Tanaka Gomimasa, civilians who were not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war, were coerced by powerful figures and forced to board a ship bound for Korea in order to participate in forced farming. These events are related to Japanese civilians' participation in the war, which was implicitly present during the Korean War. In Gwak Hak-song's “Railroad,” the protagonist shows that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show a governance structure that attempts to subjugate people to an ideology without respect and protection for the individual's individuality. Both works expose the mechanism by which civilians are caught in war by the ‘dispositif’ of government. Furthermore, it is common to see that civilians are not frustrated by such a ‘dispositif’ and come out of it, that is, show a way of being as a non-governable person. The characters of “Landing” voluntarily decide to disembark, and the protagonist of “Railroad” does not obey the decisions of the rulers when it comes to real issues, and does not stop judging his own values until the end. Through the representations of civilians in these works, we are confronted with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field of a problem consciousness that is necessary to secure a transnational perspective, confirming the reality of the Cold War regime and the national violence that caused the Korean War.

Key Words : Tanaka Gomimasa, Kwak Hak-song, Korean War, Civilians,
Dispositif, Derailment, Transnational Perspective

■ 논문접수일 : 2021. 02. 10

■ 심사완료일 : 2021. 03. 14

■ 게재확정일 : 2021. 03. 15

